https://doi.org/10.18856/jpn.2024.30.3.008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창조자-피조물 관계와 인간강화의 역설*

박성호**

1. 들어가며
2. 창조-피조의 중첩으로 구성된 인간강화의 기획
3. 인간강화에 대한 욕망의 복제와 변주 - 강화를 추구하는 피조물의 역설
4. 역설로부터 미끄러지는 질문 - 인간강화의 '이유'
5. 정리하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인간강화(human enhancement)에 대한 욕망과 그로 인한 역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가운데 첫 작품인 이 영화는 엔지니어와 인간, 인간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엔지니어 사이의 창조-피조 관계를 통해 인간강화를 향한 욕망과 그 이면에 놓인 인간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웨이랜드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첫 시도로 인조인간 데이빗을 창조한다. 데이빗은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모방하지만, 인간을 초월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인간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 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4058286)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데, 이는 인간강화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형태의 '트랜스휴먼'인 제노모프를 탄생시킴으로써 그 욕망에 내재한 위험성을 보여주려 한다. 영화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며,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강화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기술적 진보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제시한다. 영화는 인간강화가 단순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는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간강화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경고와도 연결된다. 영화는 인간강화의 결과로 탄생한 제노모프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러한 욕망이 인간을 더욱 이질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강화의 끝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강화의 목적과 그 이유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주제어: 인간강화,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안드로이드, 취약성, 트랜스휴먼)

1. 들어가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진흙에서 인간을 창조했으며,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었다가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는다. 그는 인류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한 탓에 영원한 고통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이 신화는 인간이 타고난 자

연적 한계를 함부로 뛰어넘으려고 하면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받으리라는 공포를 암시한다.[1]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이러한 은유는 인간강화(human enhancement)[2]를 둘러싼 오늘날의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1979년 *Alien*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 격으로 기획된 3부작 중 첫 작품이다. 감독인 리들리 스콧 자신은 〈프로메테우스〉가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3] 후속작에서는 〈에이리언: 코버넌트〉라 하여 '에이리언'을 명시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가 실질적으로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임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이 영화는 그 제목에서도 이미 엿보이듯이 인간강화를 둘러싼 담론과 역설을 곳곳에서 짚어내고 있다. 리들리 스콧 본인부터 이미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필멸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 혹은 트랜스휴먼(transhuman)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오기도 했지만,[4] 〈프로메테우

1) 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 트랜스휴머니즘의 현재와 미래』, 강병철 역, 꿈꿀자유, 2020, 27쪽.

2) enhancement에 대한 번역은 '증강', '향상', '강화' 등이 제시된다. 앨런 뷰캐넌의 저서 『인간보다 나은 인간: 인간 증강의 약속과 도전』(2015)에서는 '증강'이라 번역한 반면, 조태구(2019)나 강철(2020), 조문주(2023) 등은 '강화'로, 추병완(2015)이나 이상헌(2017), 이은영(2020) 등은 '향상'으로 번역한다. '증강'의 경우에는 augmentation과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향상'과 '강화' 사이에는 뚜렷한 의미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향상(向上)이라는 단어는 상태나 정도의 '나아짐', 즉 가치판단으로서의 긍정강화를 함축하는 만큼 "가치평가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더욱 나은 존재로 개선한다는 의미로 읽"(신상규, 「인간향상과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증」, 이화인문과학원 엮음,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아카넷, 2017, 45쪽)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간이 지닌 다양한 능력의 개선 내지는 증강이라는 뜻에서 '강화'로 통칭하기로 한다.

3) 양지현, 〈당신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아시아경제』, 2012.6.26., 접속일: 2024.03.10., https://www.asiae.co.kr/article/2012062512575474065.

4)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 강순규는 프랑켄슈타인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현대과학의 오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하였으며, 박옥경은 원작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

스〉는 기존 〈에이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이라는 인상이 강한 탓인지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지닌 맥락을 중심으로 영화 속 신화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이 일반적이다.[5)]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창조-피조 관계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동력에는 인간강화에 대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에이리언〉 시리즈가 미지의 외계 생명체에 대응하는 인간의 생존 서사를 그려낸 반면, 〈프로메테우스〉는 그 출발점이 다름아닌 인간이었다는 점, 특히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안드로이드 데이빗의 창조나 프로메테우스호를 통한 외우주 탐사활동 등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일련의 기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런 점을 잘 대변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짚어내고 있는 인간강화에 대한 욕망과 함정, 그리고 가장 '이질적인' 트랜스휴먼의 탄생을 통해 그 욕망이 마주치게 되는 역설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필멸성을

술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을 논하였다. 강순규, 「비인간적 인간과 인간적인 복제인간 -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4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1, 133-152쪽; 박옥경, 「과학기술 시대의 디스토피아 비전: 〈블레이드 러너〉와 『앤드로이드는 전기양 꿈을 꿀까?』」, 『영어영문학21』 제18권 2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05. 43-67쪽.

5) 손현석, 「〈프로메테우스〉와 인류의 기원 고찰」, 『영상예술연구』 제21호, 영상예술학회, 2012, 191-224쪽; 양유정,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나타난 비인격체의 인격성 -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안드로이드 데이빗 연구」, 『유럽사회문화』 제20호,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8, 213-240쪽; 허의진, 「리들리 스콧 영화에서 드러나는 히스테리의 구원론 -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에이리언: 커버넌트〉, 〈킹덤 오브 헤븐〉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65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2, 147-174쪽.

극복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6]할수록 오히려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인간 그 자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파괴적인 형태의 트랜스휴먼, 즉 '제노모프(Xenomorph)'[7]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2. 창조-피조의 중첩으로 구성된 인간강화의 기획

〈프로메테우스〉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기원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오리지널 4부작의 첫 작품인 *Alien*에서는 미지의 외계 생명체로서 그 이름조차 뚜렷하지 않아서 'creature' 내지는 'thing'이라고만 지칭될 뿐이었다.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후속작 *Aliens*(1986)에서 제노모프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퀸(Queen)과 함께 그 생태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는 했지만 4부작 내내 그 구체적인 정체나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였다.

---

6) 〈프로메테우스〉에서 할로웨이와 데이빗의 대화 중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기원 탐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내해야 한다는 할로웨이의 주장 중 일부이다. 이는 데이빗이 검은 액체를 할로웨이에게 주입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하는 동기로도 작동한다.

7) Xenomorph라는 명칭 역시 별도의 종명(種名)이 아니라 그리스어의 '낯선(Xeno)'과 '물체(Morph)'를 합쳐서 만든 말이며, 영화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팬이나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이 명칭이 해당 외계생명체 자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고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국내의 평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글에서도 영화 제목이나 시리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에이리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해당 생명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노모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후경, 〈태초의 시간을 아는가〉, 『씨네21』 제854호, 2012.5.22., 접속일: 2024.06.14., http://m.cine21.com/news/view/?mag_id=69944.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오래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도 이러한 재구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감독 본인이 외계인의 인류 문명 전파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8]도 그러하지만, 이를 통해서 외계-지구-인간의 연계를 인류의 기원으로 수렴[9]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리지널 4부작이 제노모프를 외부에서 기인한 미지의 생명체, 즉 Extraterrestrial life로 고착시켰던 데 반해 〈프로메테우스〉는 이를 다시 인류의 기원과 맞닿게 함으로써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10]

물론 이러한 상상력은 〈프로메테우스〉만의 것은 아니다. H.웰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철학자 스테이플던(Olaf Stapledon)은 소설 『마지막 그리고 첫 번째 인류』(1930)에서 현생 인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총 18단계에 이르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다룬 바 있다.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조인간은 물론이려니와 날개를 달거나 손가락이 안테나로 변하는 등의 기이한 형태까지 포괄하는 이 진화의 서사[11]란 〈프로메테우스〉가 기존 〈에이리언〉의 서사를 '인위적' 진화, 즉 인간 강화로 수렴한 양상과 적잖이 닮아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이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놓인 존재라는 점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출발점은 작중에서 '엔지니어'라고 통칭되는 미지의

8) 김도훈, 〈30년 만에 돌아온 앙코르 SF〉, 『씨네21』 857, 2012.6.11., 접속일: 2024.06.14., http://m.cine21.com/news/view/?mag_id=70141.

9) 손현석, 앞의 논문, 194쪽.

10)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 구도가 완결되는 것은 후속작인 〈커버넌트〉의 등장과 함께였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의 기원 탐색이라는 명목 하에 '창조주의 창조주'라는 구도를 보여준다면, 〈커버넌트〉는 이를 뒤집어서 '피조물의 피조물'이라는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엔지니어-인간-인조인간-제노모프의 관계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허의진, 앞의 논문, 161쪽.

11)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39-40쪽.

외계 종족이 인간을 창조했음을 발견하는 데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기원을 찾는다는 목적 하에서 프로메테우스호(號)를 발진시켜 탐사 임무에 나서는 것이 명목상의 목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웨이랜드사의 회장 피터 웨이랜드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즉 인간 본연의 취약함(vulnerability)[12]을 극복할 수 있는 '불'을 얻기 위해 창조자인 엔지니어를 찾아간 것이었다는 사실이 영화 후반부에 드러난다.

보스트롬(Nick Bostrom)이 불멸의 욕망에 이끌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하세계로 간 길가메쉬 왕의 이야기 『길가메쉬 서사시』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극복이란 트랜스휴머니즘이나 인간강화에서 가장 주목하는 테마 가운데 하나다.[13] 철학적인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의료의 측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노화한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서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노바티스 등 거대 제약기업들이 항노화의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수명 연장은 인간강화의 주된 화두가 되었다. 이는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보건의료비와 연금의 압박을 받는 각국 정부의 관심사로도 급부상했다.[14] 웨이랜드 역시 이러한 인간강화의 고유한 주제, 즉 '불멸'의 획득을 위한 기획을 수립한다.

---

12) 조태구에 따르면 '취약함(vulnerablitiy)'은 상처를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vulnus에 가능형어미 abilis가 덧붙어 만들어진 형용사로 말 그대로 풀어 쓰자면 '상처받을 수 있음',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함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연약한 신체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와 세계 내에서 공존하며 감각하고 운동하며 감성을 느낀다. 조태구, 「인간적 취약함의 의미 - 인간 강화 시대의 인간」, 『가톨릭철학』 제32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9, 8-10쪽 참조.

13) 트랜스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나이듦이란 병이며, 극단적인 생명연장을 통해 인간 육체의 노화와 소멸을 지양한다. 야니나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오 역,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54-55쪽.

14) 이브 헤롤드, 앞의 책, 229-230쪽.

작중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러한 일련의 기획 내에서 웨이랜드는 먼저 인간을 닮은 존재를 창조한다. 이렇게 탄생한 '데이빗8'은 연산 기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감정까지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였다.[15] 인공적인 타자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슈퍼종'의 창조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16] 웨이랜드에게 이러한 창조란 곧 자신을 피조물-인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신(神)이 수행한 것과 같은 창조를 실현하면, 자신 역시 신의 권능에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17]

이는 후속작인 〈커버넌트〉의 도입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처음 눈을 뜬 데이빗에게 웨이랜드는 자신을 '아버지(Father)'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에 대해 데이빗이 자신은 아들(your son)이냐고 묻지만, 웨이랜드는 피조물(my creation)이라 대답한다. 이후로도 데이빗은 웨이랜드를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부자(父子) 관계를 칭할 만큼 둘 사이의 친연성을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문자 F로 대변되는 신적 존재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

15) 정식명칭은 The David 8. 영화 본편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차세대 데이빗을 소개합니다(Introducing the next generation DAVID)"라는 광고 컨셉의 개별 트레일러에서는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데이빗이 8세대이며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데이빗'으로만 표기한다. (https://www.imdb.com/video/vi2433000217. 접속일: 2024.04.23)

16) 이러한 시각은 기술적 포스트휴머니즘의 주된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자체'의 변화보다는 인공적인 타자의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휴머니즘, 즉 '인간1.0'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포스트휴머니즘을 나아갈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야니나 로, 앞의 책, 19-21쪽 참조.

17) 〈프로메테우스〉의 바이럴(viral) 영상으로 제작된 피터 웨이랜드의 TED에서 그는 인류의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언급하면서 이를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한다. 그리고 이제는 인조인간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드디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선언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GROrp3XBRrE&t=25s. 접속일: 2024.05.14.)

이러한 관계는 고스란히 엔지니어-인간의 것으로 유비(類比)된다. 쇼 박사는 DNA분석을 통해 엔지니어와 인간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러나 엔지니어를 '선조'라 부르는 쇼의 관점과 달리, 엔지니어는 인간을 자신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피조물이기에 이를 파괴할 권리 또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예의 '검은 액체(black goo)'를 이용하여 인류를 절멸코자 한다.

창조자는 끊임없이 피조물과 자신을 구분하려 하지만 피조물은 창조자에게 다가서고자 하고, 이는 창조자가 피조물로 전환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엔지니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엔지니어는 인간과의 동화를 거부하며, 인간은 안드로이드를 배타하고 분리하지만 안드로이드는 자신의 '인간됨'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인간은 안드로이드와 협력하여 엔지니어와 대결하며, 다시 안드로이드는 제노모포를 창조함으로써 인간과 대결한다. 피조물은 자신이 창조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피조물과 더불어 자신의 창조자와 대결하는 것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는 자신을 피조물에서 창조자의 반열로 올려놓고자 하는 욕망이 놓여 있다. 웨이랜드의 관점에서 '불'이란 인간이 자연적인 진화의 법칙을 뛰어넘어 인위적 진화, 즉 '강화'를 가능케 하는 특이점인 셈이다.

3. 인간강화에 대한 욕망의 복제와 변주 – 강화를 추구하는 피조물의 역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창조자에 대한 탐색에서 출발하지만, 정작 창

조자와 피조물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관계의 중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는 창조자의 창조와 파괴 행위가 피조물이라는 타자를 상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창조라는 행위는 자기 외부의 타자를 만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충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데이빗이 탄생하는 순간을 묘사한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의 존재란 웨이랜드의 욕망이 투사된 대상이다.[18] 그러나 이러한 투사의 끝은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또다른 욕망으로의 대체다. 데이빗은 웨이랜드의 욕망을 복제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웨이랜드의 욕망을 좌절시킨다.[19]

웨이랜드가 데이빗을 만들어낸 것은 피조물-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창조자-신과 동일한 반열에 오르기를 원해서였다. 데이빗을 만들면서 자신을 창조주(Father)와 동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LV-223 탐사를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창조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올라선 엔지니어에게 죽음이라는 자신의 을 극복할 방법을 얻어내려고 한다. 즉 웨이랜드에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취약성을 넘어서 진정한 강화를 수행함으로써 '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획이었던 셈이다. 쇼는 이 '신'이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엔지니어라는 또다른 인류임을 제안함으로써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외우주 탐사로 확장되게 만들었다. 웨이랜드는 데이빗을 만들어냄으로써 엔지니어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자신 또한 '신'의 반열에 올라섰으니

18) 허의진, 앞의 논문, 162쪽.

19) 이를 두고 양유정은 〈커버넌트〉의 도입부에서 다비드상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데이빗'이라 지은 것부터가 창조주의 권력을 창조물이 이양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분석한다. 데이빗은 신-콤플렉스(God-Complex)의 소유자로 영화 곳곳에서 자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창조주로서 군림하고 싶어한다는 암시를 내비친다. 양유정, 앞의 논문, 217-219쪽.

신과 같은 '권능', 즉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 본편에서는 삭제된 장면[20] 중에는 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엔지니어의 머리를 발견한 직후 쇼 박사가 인간의 기원에 관련된 전설을 언급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태초에 태양이 있었으나 비출 대상이 없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훗날 인간이 왜 자신을 만들었느냐고 묻자 "나는 홀로였기 때문이다(Because I'm alone)"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쇼 박사는 덧붙인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We're not alone anymore)". 이 일화에 빗댄다면 인간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낸 이유는 인간의 '불'이 비출 대상을 찾기 위함이지, 안드로이드 그 자체의 탄생을 위해서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만들어내고 대상을 비춤으로써 자신 또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존재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빗이 인간이나 엔지니어와 같은 '창조자'로 거듭나는 데에는 이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LV-223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검은 액체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추론에 도달했고, 할로웨이가 마시는 술에 그 액체를 섞음으로서 이를 입증한다. 자신 또한 웨이랜드처럼 피조물을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창조자와 동일한 반열에 놓는다. 웨이랜드가 엔지니어와 동일한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강화를 꾀했던 것처럼, 데이빗 역시 웨이랜드와 동일한 권능을 획득함으로써

20) 해당 장면은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Blue-ray) 판에 다른 삭제된 장면들과 함께 수록되었다. 리들리 스콧은 디렉터스 컷이라는 방식의 선구자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하며, 평소 극장판과 다른 DVD판 편집의 의미를 강하게 긍정하기도 했다. 블루레이에 삭제된 장면들을 따로 수록한 것도 이러한 감독 본인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미, 「차이 생성의 영화철학 - 리들리 스콧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9권 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214-215쪽 참조.

인간-엔지니어와 동일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시의 과정은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엔지니어나 인간은 자신과 피조물을 구별하려고 하나, 동시에 피조물을 최대한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에서 LV-223을 탐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와중에 할로웨이와 데이빗이 나누는 대화는 그래서 다분히 상징적이다. 데이빗은 이미 '강화된 인간'이므로 별도의 호흡장치가 불요함에도 관련 장구를 갖추는 모습에 대해 할로웨이는 의문을 표한다. 그러자 데이빗은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같은 사람들은 같은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이다(Because you people are more comfortable interacting through own kind)". 인간이 창조한 안드로이드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그 한계마저도 모방해야 한다는 모순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인간이 스스로를 안드로이드와 구분하려는 시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에 근접해간다는 역설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오리지널 4부작에서 등장하는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Alien〉에서 노스트로모호(號)의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과학장교 '애쉬(Ash)'는 웨이랜드가 비밀리에 파견한 안드로이드이었으며, 이는 〈Aliens〉 초반부에서 주인공인 리플리가 안드로이드 '비숍(Bishop)'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물론 영화의 진행 과정에서 비숍은 조력자로 활약하면서 리플리의 신임을 얻기는 하지만, 영화 전반에서 작중인물들이 인조인에게 보여주는 태도란 이종(移種)에 대한 배타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에이리언3〉의 결말에서 등장한 인간 비숍(Bishop Weyland)[21]는 리플리를 보조했던 안드로이드 비숍과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하여 비숍을 설계했으며, 웨이랜드-

유타니社를 대변하여 리플리의 체내에 있는 퀸을 확보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그는 리플리에게 제노모프의 가능성을 역설하는데, 이 발언은 〈Alien〉의 애쉬가 제노모프를 두고 "양심이나 후회, 도덕의 망상으로 흐려져 있지 않은 생존자. 나는 그 순수성을 존경한다(I admire its purity. A survivor unclouded by conscience, remorse, or delusions of morality)"라고 평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는 〈에이리언〉 시리즈 내내 등장하는 초거대기업 웨이랜드-유타니가 제노모프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했다. 웨이랜드-유타니社는 제노모프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주목했으며, 인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제노모프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들은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제노모프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을 뿐이다.

이런 테도는 〈프로메테우스〉의 할로웨이나 웨이랜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엔지니어의 DNA가 인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쇼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제 벗어버리라고 요구한다. '신'이라는 존재도, 생명탄생의 신비도 없으니 이젠 DNA와 뇌만 있으면 이제 누구든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쇼가 중시했던 것은 인간을 창조한 '이유'이지만, 할로웨이의 관점에서는 이유보다는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다는 '권능'이 더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엔지니어의 정체를 확인한 이상 십자가로 대

21) 작중에서는 웨이랜드-유타니에서 파견한 인물 정도로만 언급되며 마치 웨이랜드 회장 본인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이후 2019년 발표된 게임 *Alien: The Roleplaying Game*에서는 웨이랜드-유타니의 생물병기 연구개발본부장이자 임원인 '마이클 비숍 웨이랜드(Michael Bishop Weyland)'로 확정된다. 다만 이는 게임보다 먼저 등장했던 〈프로메테우스〉에서 이미 1대 회장인 피터 웨이랜드의 정체와 죽음이 명시된 까닭에 설정 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추후에 별도의 정체성을 덧씌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되는 신의 존재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웨이랜드에게도 인류의 기원이란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명분이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 스핀오프 형태로 발표된 웨이랜드의 TED 영상에서는 이미 인간이 '불'의 힘을 얻었으며, 따라서 인간 자체가 이미 신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신이 된 인간에게 남은 길이란 프로메테우스를 찾아서 자신의 신성(神性)을 인정받고, 그에 수반되는 권능을 부여받는 일이다. 웨이랜드에게는 그것이 불멸이라는 인간강화의 궁극적인 테마였다. 그러나 웨이랜드가 자신의 피조물인 데이빗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그 자신의 권능 또한 창조자인 엔지니어에 의해 부정당할 따름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웨이랜드는 프로메테우스가 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우월성을 확증코자 한다. 즉 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떨쳐내고자 하되, 그 목적이란 인간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웨이랜드나 할로웨이가 강조하는 '영혼'이나 '감정'은 이러한 강화의 시도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며, 때로는 이들 스스로 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기조차 한다. 인간에 대한 본질주의적 질문에 대해 〈프로메테우스〉는 끊임없이 반증례들을 보여준다. 웨이랜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영혼이나 감정의 소유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으며, 오직 창조를 통한 강화에만 매달린다. 웨이랜드는 자신이 엔지니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겹쳐지는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데이빗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영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상술했듯이 영혼이나 감정의 유무란 창조자로서의 생물공학적 능력의 유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프로메테우스〉 속에 구현된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단계를 감안한다면,

본질주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22]

다만 〈프로메테우스〉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에 대한 해답의 단초가 하나 제공된다. '이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취약성과 그에 대한 강화, 혹은 기술-기능의 유무라는 이항대립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사유를 요구한다.

4. 역설로부터 미끄러지는 질문 - 인간강화의 '이유'

〈프로메테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은 창조의 '이유'에 있다. 작중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질문은 '왜'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어냈는가이다. 할로웨이는 창조주를 만나면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었노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데이빗이 똑같은 화법으로 왜 인간들이 자신을 창조했느냐고 묻자 할로웨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만들 수 있었으니까(We made it because we could)."

이는 동시에 파괴의 이유와도 연결된다. 데이빗은 엔지니어들이 왜 지구로 향하려고 했느냐는 쇼의 질문에 대해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22) 신상규에 따르면 정신주의에 대한 기능주의적 논의나 인공지능의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성성이나 신체성, 도덕성 등의 유무와 같은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간주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프로메테우스〉의 세계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데이빗은 이미 인간 수준의 이성과 감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거론한 트레일러에서도 '슬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데이빗이 전쟁(war), 가난(poverty)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리고 이는 본편에서 탑승원들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동요도 내비치지 않는 웨이랜드의 모습과 대비되기조차 한다.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59쪽.

필요하다고 답한다. 동면에서 깨어난 엔지니어는 웨이랜드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파괴의 과정에 돌입한다. 〈프로메테우스〉에서 창조와 파괴는 맞닿아 있으며, 그 '이유'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지만 그 어떤 대답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창조와 파괴에 대한 능력의 존재 여부만이 반복적으로 거론될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지탱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다. 상술했듯이 웨이랜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러나 웨이랜드는 정작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지 취약성에 대한 극복이라는 목적만이 존재했을 뿐, 인간이 무엇 때문에 '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호 승무원들의 죽음조차 외면한 채 불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엔지니어를 찾아간다. 그러나 강화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목적의식은 엔지니어에게 살해당한다는 결말로 종지부를 맺는다.

이는 엔지니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모종의 강화를 목적으로 검은 액체를 만들어냈고,[23] 인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창조해냈다. 〈프로메테우스〉의 첫 시퀀스에서 엔지니어가 마신 '검은 액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촉발된 생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인간의 기원이었음을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검은 액체는 동시에 생물학병기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 자신을 파괴하는 생물학적 재해를 일으키고야 만다.

---

23) 프로메테우스호의 선장은 LV-223이 엔지니어들의 거주행성이 아니라 생물학병기 개발을 위한 시설이었으며, 모종의 바이오해저드를 일으켜서 엔지니어들이 몰살당했다고 주장한다. 영화 본편에서는 짤막하게 설명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삭제된 장면 중에서는 선장이 과거 군에 복무하던 시절 요르단에서 겪었던 일을 토대로 LV-223의 정체를 추론하여 빅커스에게 들려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처럼 강화를 위한 목적의식만으로 움직이는 인간, 혹은 '인간적인 주체'의 모습은 안드로이드인 데이빗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다. 데이빗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하게 인간의 취약성을 포착하고 이를 강화한 형태의 최종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 그는 곳곳에서 인간-엔지니어의 필멸성을 극복해야 할 취약성으로 규정한다. "당신(웨이랜드)은 죽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커버넌트〉에서의 발언도 그러하거니와, 〈프로메테우스〉에서 엔지니어의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그들도 불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이빗은 이처럼 '불완전한' 엔지니어-인간의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생명체를 창조해낸다. 〈프로메테우스〉에서는 검은 액체를 흡입한 할로웨이를 이용하여 불임이었던 쇼에게 트릴로바이트(trilobite)를 임신, 출산케 했다. 그리고 이 트릴로바이트는 동면에서 깨어난 엔지니어를 숙주로 삼아 초창기 형태의 제노모프인 '디컨(The Deacon)'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나아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는 이때의 경험과 쇼에 대한 생체 실험 등을 토대로 '프로토모프'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따지고보면 제노모프의 탄생이란 곧 웨이랜드가 지닌 욕망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었다. 웨이랜드는 자신의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원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대신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를 창조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프로메테우스호의 임무 브리핑에서 데이빗을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소개한 것도 그러하거니와, 인간의 취약함, 즉 필멸성(必滅性)이야말로 자연의 섭리라고 역설하면서 그를 설득하려는 딸(비커스)을 매정하게 뿌리치기조차 한다. 할로웨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웨이랜드는 죽음을 극복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인물이다. 데이빗은 이런 태도마저 고스란히 가지고 온다.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라고도 할 법한 '사랑'을 느낀 대상이었던 쇼를 자신의 생체 실험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쇼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흐름을 거스르는 인물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유'를 알고자 한다. 엔지니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이 인류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엔지니어의 모성을 찾아가려는 까닭에 대해서도 "왜 우리를 창조한 뒤에 다시 파괴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일고 싶다"고 말한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데이빗은 로봇이기에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쇼의 대답은 이 영화에서 왜 '이유'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가늠케 한다.

리들리 스콧은 자신의 여러 작품에서 삶에 대한 의지, 혹은 생에 대한 강력한 긍정을 내비치고는 했으며, 이는 〈Alien〉의 리플리가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내며 필사적인 싸움을 이어나가는 동력이기도 했다.[24] 이는 〈에이리언〉 시리즈를 관통하는 원칙이기도 한데, 리플리는 마지막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인물로서 매번 유일한 생존자로 남는다.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애인과 동료들의 죽음이나 트릴로바이트 출산과 같은 극단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생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 결과 유일한 생존자로 LV-223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쇼를 움직인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유'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었다. 그는 엔지니어에게 인간의 창조와 파괴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지구로의 귀환까지 기꺼이 포기한다. 영화 내내 언급되었던 영혼이나 감정의 정체란 곧 이유를 알고자 하는 쇼의 태도로 수렴된다. 행위 그

24) 박수미, 앞의 논문, 217쪽.

자체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유'를 끊임없이 물으며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물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강화를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백안시하지는 않는다. 쇼는 할로웨이나 웨이랜드의 합목적적 사유에도 동조하지 않지만, 인간의 취약함을 자연의 섭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빅커스와도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호 탐사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후에도 쇼는 웨이랜드와 동행하여 엔지니어를 만나는 쪽을 선택한다. 다만 그 의도가 웨이랜드와 달랐을 뿐이다.

웨이랜드가 엔지니어에게 던진 질문이란 신(Father)에 동일한 반열에 올라서는 데 필요한 인간강화의 비결이었다. 그러나 쇼는 그 대신 엔지니어에게 인간의 창조와 파괴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 이는 나아가서 웨이랜드가 추구하는 강화의 욕망, 즉 데이빗을 창조함으로써 자신의 창조자와 동일한 반열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왜 자신의 취약함을 극복해야 하는가.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도입부에서 인간의 탄생이 생물학적 우연에 의한 것임을 확고하게 부정하는 웨이랜드의 태도는 앞으로의 진화 역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 바꿀 수 있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 쇼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인류의 기원을 좇는다는 쇼의 목적은 인류의 창조자를 만나서 불멸의 기원을 찾아내겠다는 웨이랜드의 그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쇼는 창조와 파괴의 이유를 묻고자 했고, 웨이랜드는 그 권능을 얻고자 했다. 둘의 차이는 이 지점에서 명료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극복한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끊임

없이 탐색하는 일이다. 인간강화를 통해 취약성을 극복하는 일이란 인간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의 시도이기도 하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리플리에게 부과되었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당위는, 〈프로메테우스〉의 쇼에 이르러서는 '질문하고 싶다'는 의지로 바뀐다. 전자가 제노모프라는 이질적인 존재로부터 비롯되는 당위라면, 후자는 프로메테우스가 되고자 한 인간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도외시한 채 반복되는 강화의 행위란 곧 파국으로 치닫게 마련이다. 적어도 〈프로메테우스〉가 그려낸 세계관 내에서는 그러하다.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이든, 혹은 외부의 타자를 통한 간접적인 극복이든 반복되는 인간강화의 끝에 탄생한 결말이란 곧 제노모프였다. 이는 또 다른 범주에서의 인간, 즉 일종의 트랜스휴먼(transhuman)에 가깝다. 웨이랜드가 자신을 모방하여 데이빗을 창조했듯이, 데이빗 역시 인간의 유전자를 활용하여 제노모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물론이려니와 기존 〈에이리언〉 시리즈의 인간은 제노모프를 철저하게 이질적인 타자로만 간주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다시금 언급해야겠다. 다만 〈프로메테우스〉 이전까지는 그 기원이 가려져 있었으며, 후속작에서 드러나는 쇼의 죽음과 월터의 실패로 인해 데이빗 자신을 제외하고는 작중 세계관의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점은 장피에르 죄네 감독의 *Alien: Resurrection*(국내 개봉명 〈에이리언4〉, 1997)에서도 엿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복제 과정[25]에서 제노모

25) 작중에서는 〈Alien 3〉에서 퀸의 체스트버스터와 함께 용광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리플리의 유전정보를 토대로 퀸을 얻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의 복제를 시도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제노모프 퀸을 추출, 배양하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복제된 리

프 퀸의 유전정보 일부를 습득한 리플리가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이는 〈프로메테우스〉의 초반에 혼자 프로메테우스호를 관리하는 데이빗이 자전거를 타면서 농구공을 골대에 던져넣는 오마주로 활용되기도 했다.[26] 게다가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유전자 일부를 물려받은 제노모프 퀸은 기존과 달리 태생(胎生)의 방식으로 인간과 더욱 닮은 변종 제노모프를 낳기조차 한다. 그리고 이 변종은 자신을 낳은 퀸보다도 리플리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되며, 리플리 역시 변종 제노모프를 제거하면서도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그 최후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이리언4〉 이후 15년의 시간을 걸쳐 프리퀄의 형태로 제시된 〈프로메테우스〉의 서사는 제노모프를 인간의 연장선상에 두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함과 어울러, 인간 강화에 대한 명분 없는 욕망이 직면하게 될 역설을 데이빗에 의한 제노모프의 탄생이라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을 타개할 유일한 가능성으로서 강화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않는 쇼에게는 지구로의 귀환 대신 엔지니어 모성으로의 탐험을 제시한다. 〈프로메테우스〉가 주목하는 것은 인간강화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한 탐색이었으므로, 쇼에게는 엔지니어가 추구했던 강화, 즉 자신과 닮은 존재로서의 인간 창조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플리 역시 제노모프의 유전자 일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설정이다.

26) 〈에이리언: 리서렉션〉의 실내 농구장 장면에서 리플리는 등을 돌린 채로 농구공을 골인시킴으로써 그가 초인적인 능력을 지녔음을 암시한다. 이는 〈프로메테우스〉에서 자전거에 탄 채로 골대를 등지고서 농구공을 던져넣는 데이빗의 모습과 중첩된다.

5. 정리하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강화가 봉착할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너머에서 도래할지도 모르는 '사건의 지평선'을 엿보게 한다. 인조인간 데이빗의 서사를 따른다면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이다. 그러나 작중에서의 인간은 이러한 탄생의 출발점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강화의 결과로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한다. 창조와 탄생의 이유를 끊임없이 묻고자 하는 쇼 역시 비극을 피하지 못한다.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데이빗은 검은 액체로 엔지니어들을 몰살함으로써 인간과 엔지니어 사이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다. 쇼 역시 데이빗의 살해되어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쇼의 죽음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제노모프라는 사실은 '이유'에 대한 탐색으로 끝을 맺었던 〈프로메테우스〉의 열린 결말조차도 결국은 창조를 위한 파괴로 귀결되리라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연상케 한다.

인간을 모방한 외부적 타자의 창조든지, 냉동수면과 같은 형태의 수명 한계 연장이든지, 혹은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의 수명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극복이든지 〈프로메테우스〉가 가리키는 강화의 끝은 종의 파괴로 귀결된다. 웨이랜드는 엔지니어에게, 엔지니어는 트릴로바이트에게 살해당한다. 심지어는 웨이랜드의 목적을 몰랐던 프로메테우스호의 승무원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최후의 생존자인 쇼를 기다리는 미래 역시 비극적이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강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선을 짚어내는 것은 아니다. 상술했듯이 필멸성 자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비커스조차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하며, 이는 최후의 생존자인 쇼가 바라보는 관점과도 사뭇 다르다. 영화 속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평가

하고 받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찬반의 여부나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인간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자의 발명에서부터 항공기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기의 인류 문명이 축적해온 발전 대다수가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일조해왔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자체를 두고 강화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힘들다. 적어도 인간강화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지난 세기의 발달과 현재 우리가 직면한 트랜스휴머니즘적 관점에서의 강화, 즉 노화조차도 질병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의 접근법 사이에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7]

그러하기에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화의 욕망은 끊임없는 질문과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관찰은 인간강화 전반, 혹은 포스트휴먼의 존재가치 그 자체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접근과 시도 각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결국 〈프로메테우스〉가 던지는 질문이란 창조와 파괴로 대변되는 수많은 강화의 시도 끝에 자리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죽음조차 극복하고자 하는 궁극의 강화는 과연 인간을 인간으로 온존한 채 실현될 수 있는가? 웨이랜드의 욕망이 도구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프로메테우스〉는 거꾸로 그러한 도구가 인간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를 묻고자 한다.[28] 인간강화란 인간의 취약

27) "인간 향상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상' 개념에 대한 이러한 확장적인 해석을 비판해야 하며, 신발, 의복, 커피, 스마트폰 및 현대의 여러 의료 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인간 향상 기술 사이에 어떤 원칙적인 구분이 가능함을 보여야 한다. 이 경우 도덕적으로 유관한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당화할 입증의 책임은 향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져야 한다." 신상규, 앞의 책, 153쪽.

성을 극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영화는 쇼의 입을 통해서 되묻는 것이다. 인간강화를 통해서 인간 그 자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이 곧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28) 근대 휴머니즘에서 '도구'란 인간과 분리되고 구분되는 외재적 사물이며, 그러하기에 인간 그 자체는 '벌거벗은 인간'의 이미지로 구축된다. 그러나 도구란 오직 외재적 사물인 도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활동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활동 자체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그 자체를 정의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하기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인간강화란 인간 그 자체와 분리되는 외재적 존재로서만 상정될 수 없으며,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지금과는 상이한 형태의 트랜스휴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최진석, 「기술과 인간, 사회의 존재론적 공속(共屬)에 관한 시론」, 이화인문과학원 엮음,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아카넷, 2017, 15-20쪽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Promethus〉, 2012.

〈Alien: Covenant〉, 2017.

2. 논문과 단행본

강순규, 「비인간적 인간과 인간적인 복제인간 - 영화 〈블레이드 러너〉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제4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11, 133-152쪽.

강철, 「동물을 생물학적인 최대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횡단인문학』 제5권 1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0, 1-27쪽.

박수미, 「차이 생성의 영화철학 - 리들리 스콧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9권 3호,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211-234쪽.

박옥경, 「과학기술 시대의 디스토피아 비전: 〈블레이드 러너〉와 『앤드로이드는 전기양 꿈을 꿀까?』」, 『영어영문학21』 제18권 2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05, 43-67쪽.

손현석, 「〈프로메테우스〉와 인류의 기원 고찰」, 『영상예술연구』 제21권, 영상예술학회, 2012, 191-224쪽.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2014.

양유정,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나타난 비인격체의 인격성 -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커버넌트〉의 안드로이드 데이빗 연구」, 『유럽사회문화』 제20호,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2018, 213-240쪽.

이상헌, 「포스트휴먼과 행복 - 기술적 인간향성(human enhancement)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철학논집』 제51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7, 131-151쪽.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의 인간학과 헤븐(HEAVEN) 프로젝트: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을 통한 죽음의 혁명은 가능한가?」, 『현대유럽철학연구』 제56호, 한국하이데거학회, 2020, 99-129쪽.

이화인문과학원 엮음,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아카넷, 2017.

조문주, 「신경공학적 인간 강화에 관한 법철학적 재고」, 『인문사회21』 제14권 3호, 인문사회21, 2023, 4153-4164쪽.
조태구, 「인간적 취약함의 의미 - 인간 강화 시대의 인간」, 『가톨릭철학』 제32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9, 5-33쪽.
추병완, 「인간 향상 논쟁에서 생명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윤리교육연구』 제36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171-195쪽.
허의진, 「리들리 스콧 영화에서 드러나는 히스테리의 구원론 -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에이리언: 커버넌트〉, 〈킹덤 오브 헤븐〉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65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2, 147-174쪽.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19.
야니나 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조창오 역,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앨런 뷰캐넌, 『인간보다 나은 인간 - 인간 증강의 약속과 도전』, 심지원·박창용 공역, 로도스, 2015.
이브 헤롤드,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 트랜스휴머니즘의 현재와 미래』, 강병철 역, 꿈꿀자유, 2020.

3. 기타 자료

김도훈, 「30년 만에 돌아온 앙코르 SF」, 『씨네21』 857, 2012.6.11.
양지현, 「당신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아시아경제』, 2012.6.26.
이후경, 「태초의 시간을 아는가」, 『씨네21』 854, 2012.5.22.
〈Alien〉, 1979.
〈Aliens〉, 1986.
〈Alien 3〉, 1992.
〈Alien: Ressurection〉, 1997.

Abstract

The Creator-Creation Relationship and the Paradox of Human Enhancement in the <Prometheus>

Park, Sung-Ho(Kyunghee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desire for human enhancement and the resulting paradoxes through the film *Prometheus*(2012). As the first prequel to the *Alien* series, this film raises new questions about the issues of human enhancement and the underlying aspects of humanity through the creators-creations relationships between Engineers and humans, humans and androids, and androids and Engineers.

Peter Weyland, in his first attempt to overcome the human limitation of mortality, creates the android 'David-8'. David behaves like a human and mimics emotions but harbors a desire to transcend humanity. He uses human genetic information to create new life forms, 'Xenomorphs', presenting the most alien and destructive form of 'transhuman' that human enhancement can bring, thus revealing the inherent dangers of that desire. The film delves into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creators and creations, warning that the attempt to transcend human limitations may actually threaten the essence of humanity.

Prometheus poses questions about human enhancement and presents a philosophical reflection on how technological advancement might change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The film goes beyond merely enhancing abilities to ask why humans should overcome their vulnerabilities. This fundamental question about human existence and identity also serves as a warning about the future that human enhancement may bring. Through the creation of the Xenomorphs as a result of human enhancement, the film symbolically shows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that human desire can produce, suggesting that this desire can turn humans into even more alien and destructive beings.

(Keywords: Human Enhancement, *Prometheus, Alien*, Android, Vulnerability, Transhuman)

논문투고일 : 2024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2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9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2일